

# 바람의 바람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열여섯번째 이야기



##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대 관장 양도영입니다.

2017년 4월 개관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 8번째 해를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관과 함께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후원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성서부지역에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섬김과 나눔,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주민 여러분께 일상이 되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뒤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에 함께 있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법인과 직원들, 든든한 지역주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저녁시간 퇴근 후, 큰 딸이 받아온 초콜렛 선물을 보며 딸아이가

“아빠 이거 되게 고급스러운 초콜렛이다. 엄청 맛있어 보여, 아빠도 하나 드셔보세요”

“에이 아빠, 그래도 우리 관장님이 만들어 주신 초콜렛은 못 따라온다”라는 말에

“그렇구나, 이제 우관장님 초콜렛 못먹는 구나”라며 두 부녀가 안타까워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매년 발렌타인 데이가 되면 전날부터 재료 준비를 하시곤 직접 초콜렛을 만들고 포장해 직원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따뜻한 “故우정석 관장님”,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드립커피,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와 인사. 직원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관장님의 마음과 미소가 떠오릅니다.

커피향기 가득한 그 어느 곳에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있고, 둥글둥글 맑은 웃음소리 가득한 곳에서 기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어린왕자에 나온 글입니다.

오늘도 서부복지관은 사막 가운데 숨겨져 있을 맑은 우물을 찾기 위해 더 노력하고,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양도영 관장 올림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열여섯번째 이야기 **하늬바람**

♥ 피어나는 일상	한글로 피운 웃음꽃 주민과 마을이 함께한 시간 기적처럼 찾아온 행복한 순간	05 06 07
♥ 스며드는 일상	안부를 묻는 따뜻한 이웃의 발걸음 함께하니 즐겁지 아니 한가	09 10
♥ 변화하는 일상	우리들의 율路(YOLO) '세상을 바라보는 눈' 땡땡, 따뜻함이 왔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속의 공간으로 무료한 일상을 활기로 물들이는 곳	12 13 14 15
♥ 함께하는 일상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우리라서 행복한 가을 캠프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서부의 핫플레이스 일상 속의 따뜻한 복지 2024년 서부 사진전에 초대합니다 2024년 하반기 후원금·품 내역, 후원자·봉사자 현황	17 18 19 20 21 22 23
🌸	후원 및 자원봉사 안내 / 본관 및 분소 약도	24



하늬바람 열여섯번째 이야기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양도영 발행처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전화 031)366-7390~1

홈페이지 www.hssb.or.kr 편집 강명은, 신유림, 오현경, 이은진, 임규태, 정진경 디자인 도노디자인 02)2272-5009

하늬바람이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 표현입니다.



피어나는 일상, 일상에 피어나다

# 한글로 피운 웃음꽃

배우고 싶다

김희자

7년전 이름 석 자만 쓸줄 알던 내가  
 늦게나마 한글을 배워보겠다고  
 복지관 한글학교에 왔다  
 처음에는 한글 학교 다닌다고  
 소문날까 하는 창피함에 숨어다녔는데  
 이제는 글을 읽고 쓸줄 아니까 창피하지 않다  
 한글 실력은 7년이란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배우고 노력했다  
 한글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마다 실력은 다르지만  
 한글을 배우고 싶은 마음만은 같다  
 우리는 창피하지 않다  
 아직 배우고 싶다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복습해도 문해교실 어르신들에게는 매번 새롭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해 여러 번 읽고 써보지만 내일이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어르신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이나 병원에서 이름을 쓰라고 할 때마다 울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이름만큼은 자신 있게 웃으며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르신들이 느끼는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은 어르신들의 입가에 웃음꽃을 피워냅니다.

**'한글 배움'이라는 목표 하나로  
어르신들은 오늘도 문해교실로 향합니다.**



일상 속 행복의 순간,  
주민과 마을이 함께한 시간

# 소소한 마을 축제



서부복지관,  
온 동네 주민이 참석하여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추(秋)익의 공간 방명록-



반복되는 일상이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즐거운 기억들이 모여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추억할 수 있도록 서부 복지관에서는 주민과 마을이 함께하는 “소소한 마을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바자회, 먹거리, 이벤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웃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는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복지관은 주민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 대화를 나누는 소리,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구매해 뿌듯해하는 주민들 친구들과 맛있는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학생들 무료한 일상 속 특별한 이 시간이 있어 행복해 보이는 어르신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일까요?  
축제는 웃음으로 가득했고 모두에게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 기적처럼 찾아온 행복한 순간

도심지역에는 영화관, 체육센터, 공연장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지만, 서부복지관이 위치한 농·어촌 지역은 도심처럼 쉽게 문화 활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사각지대, 문화소외”라는 단어는 자석처럼 우리 지역에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던 공연들이 서부복지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비로운 마술과 환상적인 무대는 주민들에게 꿈처럼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느낌은 행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부복지관은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행복을 채워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중하고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과학마술콘서트




## 알라딘과 요술램프



## 마니마니 페스티벌



※ 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스며드는 일상, 일상에 스며들다

소외된 이웃발견

# 안부를 묻는 따뜻한 이웃의 발걸음

은퇴 후, 하루하루가 조용히 흘러가고  
울리지 않는 핸드폰과 함께 적막함 속 TV 소리만이 나를 채우던 시간들.  
점점 빛을 잃어가는 내 감정은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나타나 문을 두드리며, 나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방문이 기다려졌고,  
전날 밤부터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소설 '어린왕자'에서 여우가 바라던  
의미 있는 기다림과 마음의 교감을 이제서야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들을 기다리며 행복을 그린 미소가 입가에 번집니다.  
그 따뜻한 발걸음이 계속 이곳에 닿기를 바랍니다.



##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알려주세요!

'소외된 이웃발견'은 월 2회, 간식을 나누며 이웃의 안부와 안전을 살피는 따뜻한 손길로 이어져갑니다. 지역주민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소외된 이웃의 일상에 작은 온기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고, 함께 만드는 이웃의 온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더 밝은 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계신다면 ☎ 031-366-7391(남양센터)로 연락주세요.

# 함께하니 즐겁지 아니 한가

서부복지관에서는 ‘요리’와 ‘공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사를 모아 새로운 동아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 노화(NO火)

### 불을 최소로 사용해 요리를 만드는 동아리

매주 월요일에는 불(火)을 최소로 사용해 요리를 만드는 동아리 ‘노화(NO火)’가 진행됩니다. 참여자들은 벌써 월남쌈, 또띠아, 모나카, 과일청 등 다양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 없이 요리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동아리 이름도 ‘불(火)만 없는 동아리’로 바뀌어야겠다며 너스레 소리를 합니다.



## 꼼지락

###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 동아리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공예작품을 만드는 ‘꼼지락’이 진행됩니다. 꼼지락 참여자들은 가죽공예, 레진공예, 마크라메를 배우며 다양한 작품을 완성 시켰습니다. 이제는 동아리 활동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 ‘작은 일탈’이 되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참여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할 친구가 생겨 즐겁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무척이나 소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주일마다 설렘으로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함께하기에 즐거움이 배가되는 두 동아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응원해주세요!**



**변화하는 일상, 일상이 변화하다**

# 우리들의 畧路 YOLO

마지막 화

: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는 곳

\* 전 화는 이전 소식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상을 바라보는 눈

오늘 제부도 마을회관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강사님은 주민들에게 나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고개를 저으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고 포기하는 일들도 많아 지면서 스스로 실망하고 자책할 때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강사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은 누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라며  
“못생긴 꽃은 꽃이 아닐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못생긴 건 별로 꽃 같지가 않아서 피하게 돼~”

“다른 예쁜 꽃들 많잖아, 못생긴 거 말고 예쁜 애들만 키울래!”

주민들의 대답을 들은 강사님은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한 번 바꿔 보자고 했습니다. 다른 이가 봤을 때는 못생길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볼 때 예쁘다고 생각하면 그 꽃은 예쁜 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만히 듣고 있던 황 씨 어머님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호박꽃도 꽃이잖아!” 그러자 모든 주민들이 맞장구치며

“그렇지! 호박꽃도 당연히 꽃이지!”라며 크게 웃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모습은 늙고 볼 품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이 모습 자체로도 변함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나 값진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 핑동, 따뜻함이 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는 “따뜻하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두꺼운 이불을 덮거나, 전기장판을 켜거나, 보일러를 트는 등 따뜻함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사회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난방용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서부복지관은 이웃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용품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서부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난방용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찾아 나섰고, 상담을 통해 각 가정에 필요한 난방용품을 확인하여, 16명의 이웃들에게 온풍기,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유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난방용품이 이웃들에게 단순한 물품을 넘어 ‘평범한 일상생활’이라는 따뜻한 변화로 나타나길 바라며, 앞으로도 서부복지관은 지역사회에 온기를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관심과 손길이 이웃들의 겨울을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초인종을 누릅니다.

“핑동, 따뜻함이 왔습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속의 공간으로

의식주 (衣食住)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로 의복, 식품, 주거 공간을 의미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울리고 무더위에 땀이 비 오듯 내렸던 여름날, 우리는 한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탁구를 배우며 건강한 일상을 즐기고 있는 동생과 반려묘와 보내는 일상이 즐거운 언니가 함께 살고 있는 지적장애 자매 가구였습니다.

서부복지관은 얇은 비닐로 된 외부 천막, 컨테이너 두 채를 연결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매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비닐


천막은 튼튼한 벽체로 바꾸고 손가락으로 고정시켰던 문은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문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땀을 쏟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자매가 떠올라 중고 에어컨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적인 폭염을 목전에 두고 다수가 함께 흘린 땀과 노력으로 자매는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자매는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음에 감사 인사를 하며 비닐 천막 아래를**



**뚝고 들어오던 뱀과의 사투도 이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복지관은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수원교구 사회복지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 무료한 일상을 활기로 물들이는 곳, 남양센터



취미로 채워진 일상

[ 캘리그래피 ]

"글씨도 그림도 관심 없던 제가 어느새 캘리그래피에  
폭 빠져있어요. 연습한 작품을 집에서 혼자 완성할 때마다  
뿌듯함이 느껴지고 정말 즐겁습니다."



편리함으로 채워진 일상

[ 스마트폰 교육 ]

"전에는 침침한 눈으로 연락처를 찾느라 애쓰곤 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로 가족들에게 전화도 걸고 메시지도 보내요.  
이렇게 배운 기술이 일상에 큰 변화를 만들어줬어요."



웃음으로 채워진 일상

[ 실버 레크리에이션 ]

"이렇게 많이 웃고 움직여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업 시간마다 신나는 활동을 하다 보니 제 일상도  
웃음꽃이 피어나는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함에 기대어 작은 즐거움들을 지나쳐 버렸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남양센터에서의 하루는 사뭇 다릅니다.

캘리그래피 붓을 잡고 떨리는 손끝으로 첫 글씨를 써 내려갈 때의 설렘, 스마트폰을 배우며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자신감을 느꼈던 순간,  
실버 레크리에이션 시간마다 터지는 웃음소리. 이곳에서의 시간은 평범했던 일상에 따뜻한 색을 더하고, 지루했던 하루를 활기로 채워줍니다.

남양센터는 오늘도 주민들의 삶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를 선물하며,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내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일상, 일상을 함께하다

화성시 어르신 인생노트사업 “브라보 마이 라이프”

#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하고 있는 우리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봄여름가을겨울 <Bravo, My Life!> 가사中-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서부복지관에 모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청년, 중년 그리고 지금의 삶의 순간까지 경험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즐거웠던 기억에는 함께 웃고, 슬펐던 기억에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고민하며 서로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경험도 다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동료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슬펐던 기억을 통해 과거의 나를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지금의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나를 위해 죽음에 대한 불안 대신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서부복지관은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어르신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 우리라서 행복한 가을 캠프

따뜻한 가을날, 가평 남이섬과 양평 두물머리로 1박 2일 가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포근한 날씨와 맑은 하늘, 예쁘게 물든 단풍까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완벽했던 우리의 캠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버스타고 출발~!



맛있는 닭갈비로 든든한 점심



남이섬 도착!



가을을 만끽하며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바베큐



양평 두물머리 도착!



카페에서 여유롭게 한잔



2024년 가을의 추억

“멋진 관광지 관람,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 가을을 느끼며 함께한 레크리에이션과 산책, 카페에서의 여유”  
무엇보다 함께여서 감사했던 가을 캠프였습니다.

#화성시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가을캠프 #가평남이섬 #양평두물머리 #우리라서\_행복한\_가을\_캠프

\* 본 사업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동탄중앙이음터 지원 사업입니다.

#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

아동청소년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동탄중앙이음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활동과 공예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고, 다함께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센터에서 가장 소중한 일상은 활짝 웃는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아동청소년센터는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가족공예



모루인형 공예



당근 라페 샌드위치 만들기



바람떡 만들기



# 모두가 알았으면 하는 자연과 감성이 어우러진, 서부의 핫플레이스

사진 출처: 화성시청 공식 블로그



궁평항

📍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궁평항은 2008년에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푸드트럭과 수산시장이 잘 갖춰져 있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신선한 해산물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트 체험과 갯벌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고, 매년 포도 축제도 진행되어 축제 시즌에는 포도 밟기와 포도 따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제부도

📍 서신면 제부리  
제부도는 하루에 두 번 물길이 열리는 독특한 자연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일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주요 관광지인 매바위, 제부도 해변, 제부도 아트파크, 제비 꼬리길 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각 명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고: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물때 시간을 확인하여 방문 필수!!



공룡알 화석산지

📍 송산면 공룡로 659  
🕒 운영시간: 화~일 09:00~17:00(월요일 휴관)  
🎫 입장료: 무료  
공룡알 화석이 발견된 장소로 2000년 3월 21일 천연기념물 제41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약 1억 년 전 공룡의 주요 서식지로 추정되는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석엔시스' 공룡 뼈 화석의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적,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자연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 비고: 우천 시 산책로 입장 제한



비봉습지공원

📍 비봉면 남이로 417  
🕒 운영시간: 화~일 10:00~18:00(월요일 휴관)  
🎫 입장료: 무료  
시화호 수질 개선과 자연 생태계 회복을 위해 조성된 인공습지입니다. 울창한 갈대숲의 습지는 철새들의 서식지로 철새 외에도 다양한 야생동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관찰로, 전망대, 쉼터 등 조성되어 있으며,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직원 힐링 및 역량 강화 연수

# 일상 속의 따뜻한 복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연수, 일상에 활력을 더하다



이후,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팀워크 증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활동을 통해 협력하고 함께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직원들 간의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나아가는 모습에서 협력과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서로를 이해하고, 일상 속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부담을 덜고, 함께하는 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 따뜻한 시간들이 깊은 여운으로 남아, 일상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부복지관에서 진행된 “일상 속의 따뜻한 복지” 직원 힐링 연수는 직원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주제와 활동을 직접 선정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경험은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수의 시작은 “나만의 향수 만들기”, 각자 자신만의 향수를 만들며, 직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피어나는 웃음과 따뜻한 대화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의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번 연수는, 우리에게 깊은 의미와 힘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도 함께 성장하는 복지관을 만들어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 투표참여자: 서부복지관 직원 24명  
\* 투표일자: 11.18.(월)~11.19.(화)



# 2024년 서부 사진전에 초대합니다 :)

올 한 해, 우리 서부복지관 직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 감상해보시죠~!



**영업중**  
작가: 정진경



**주름진 손으로 잡아보는 연필**  
작가: 신유림



**함께한 가을, 우리의 추억 한 장**  
작가: 김난행



**고양이도 좋아하는  
식사배달** 작가: 백가연



**#피어나는 단풍  
#자라나는 꿈나무**  
복지관에서 바라본 송산초 운동장 아이들  
작가: 최승희



**마음의 안식처,  
서부복지관**  
작가: 정은아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기쁨을 함께!**  
작가: 김남재



**다른 손이지만,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만두**  
작가: 임규태



**발을 맞추며  
걷는다는 것**  
작가: 윤다정



# 2024년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현황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지출	
전년도 이월금	84,286,845원	결연 후원금	22,500,000원
일반후원금	13,040,340원	기타 프로그램	22,134,990원
결연 후원금	26,500,000원	외부지원사업	29,313,660원
모금함	727,130원	운영비 (CMS)	274,175원
외부지원사업	16,360,000원	합계	74,222,825원
합계	140,914,315원		

###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내역

수령		배분	
후원물품	183건	재가정지원	208건
		복지관운영지원	92건
		경로식당	21건
		아동청소년센터	13건
이월품	85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1건
		유관기관 자원연계	9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건
합계	268건	합계	351건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지출	
비지정후원금	3,753,591원	운영비	159,115원
상반기 이월금	2,175,650원	사업비	2,375,628원
예금이자	570원	합계	2,534,743원
합계	5,929,811원		

###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내역

수령		배분	
후원물품	7건	후원물품	45건
합계	7건	합계	45건

## 아동청소년센터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수입		지출	
비지정후원금	1,000,000원	사업비	1,200,000원
지정후원금	1,200,000원		
상반기 이월금	2,441,283원		
예금이자	540원		
합계	4,641,823원	합계	1,200,000원

### 후원물품 수령 및 배분내역

수령		배분	
후원물품	31건	후원물품	31건
합계	31건	합계	31건

후원자 & 자원봉사자 명단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4년 하반기

#### 개인 후원자

강명은, 고인석, 김경태, 김금예, 김난행, 김남재, 김동규, 김동해, 김란연, 김명옥, 김미숙, 김미옥, 김미주, 김부연, 김애자, 김옥자, 김진웅, 김학범, 김학태, 김형식, 남소임, 당현중, 민영소, 박미숙, 박양자, 박은정, 박춘성, 박희룡, 백가연, 서미경, 서영순, 서유주, 송현숙, 신두현, 신명화, 신미자, 신유림, 신진수, 신태훈, 신희균, 심민지, 안경수, 양승숙, 양연희, 오은정, 윤다정, 윤정원, 이동식, 이성희, 이순자, 이순희, 이영성, 이영소, 이은진, 이진희, 이호승, 임규태, 장경의, 전희정, 정바울, 정부선, 정소영, 정수지, 정신자, 정은아, 정준희, 정진경, 조상민, 최가은, 최승희, 최은영, 최정임, 최호진, 한동열, 허승, 홍명화

#### 단체 후원자

(주)한신, (주)금화기공, (주)동신, (주)성호스틸, (주)성환공구, (주)세이프시티, (주)유성분체기계, (사)더함께세희망, (주)푸드코닉,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담따, 송산성수전원교회, 쉼프강정열의차이나, 수추어탕, 물사랑나눔단, 천치토종닭, 화성소방서, 흑동명가오겹살부대찌개, KT&G 화성지사, (주)새술, 골든위시, 라메르커피, 베이비깡랑, 불이원, 사회적협동조합 열린공동체(다원), 여행비투비, 주식회사 휴먼엔티, (주)화성자동차정비검사소, 기업은행

#### 봉사자

강길순, 강민자, 강새연, 고재희, 고준, 길준걸, 김가은, 김미연, 김미영, 김미옥, 김미진, 김병수, 김보경, 김상현, 김순애, 김애자, 김영남, 김영임, 김은주, 김정은, 김진영, 김재은, 김한숙, 김희성, 류재룡, 문은숙, 문현지, 박규태, 박누리, 박양자, 박철민, 서주원, 서지수, 손아정, 송정임, 신미자, 신유진, 신익영, 신정안, 신호준, 신희영, 안예빈, 안정국, 안정현, 양연희, 염은비, 오유빈, 우시연, 유선화, 유희진, 이기성, 이남진, 이병길, 이선율, 이세빈, 이수아, 이승아, 이요섭, 이유나, 이해연, 이현수, 이해란, 임선자, 장종희, 전성소, 정대규, 정소은, 정수현, 정호찬, 조동원, 조숙현, 조유장, 채명희, 채점순, 최성민, 최영애, 최재혁, 표윤정, 하지영, 홍예원, 홍재연

###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후원처** 더함께세희망, 바이제이, 베이비깡랑, 북청공방, 궁 잔기떡 향남점, 일급화성자동차 정비검사소(주), (주)신사랑, 화성시복지재단, 강래혁, 김나은, 김나현, 김미경, 김윤미, 김진수, 김재은, 김탁연, 김향순, 김현희, 민연홍, 박건수, 박상훈, 박영란, 박용일, 박종현, 신중석, 안정경, 위창환, 윤태경, 윤희정, 이건, 이교훈, 이도건, 이병환, 이정화, 이현주, 조상열, 최혁

### 봉사자



이희순

### 아동 청소년센터

**후원처** 경기과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화성시서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화성시 **봉사자** 양윤진, 한유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삼성전자사회공헌센터

### 모금함

BBQ치킨 경기사강점, GS25 송산화성로점, GS25 화성송산로점, IBK기업은행 화성송산, 감탄떡볶이 송산점, 경기 남부수협 사강지점, 고봉민김밥인 화성사강점, 김밥천국송산점, 깨비달강점, 데네임, 더카페 화성송산점, 동문정육점, 럭키할인마트 사강본점, 롯데리아 화성사강DT점, 마도 농협, 마산아구찜, 만석생고기, 명보당, 미니스톱사강터미널점, 미래약국, 베스킨라빈스 화성사강점, 복편판매점 (사강점), 복지관 나눔상자, 빵고를, 사강반점, 서울약국, 성화종합상사, 세븐일레븐 화성사강로점, 세븐일레븐 화성사강점, 송산그린한의원, 송산농협 사강지점, 송산농협(신용조합(모금함)), 송산불한증, 송산약국, 송산의원, 송산한정식, 송산할인마트, 송산행정복지센터, 수추어탕, 순천오가네김치찌개&생선구이, 신사강프라자약국, 신홍식당, 아울렛마트, 안경마을, 여기정육점와짜정육식당, 연세출내과, 영광노인요양원, 옛수원갈비, 우리광교랑마켓, 원치과의원, 이디야커피 화성사강점, 이레꽃화원, 입질대박, 자바씨티송산점, 잔치한마당, 전주도속속식점, 조대감숯불갈비, 조은이용원, 중심한의원, 청미횟집, 카자, 큰맘할매순대국, 판다팜사강점, 폭포횟집수산, 하나로마트 송산농협, 한마음식자재마트, 한일미용실, 헤어톡, 화성송산우체국, 화성제일신협 본점

## '함께' 이기에 더욱 아름다운 우리, 서부복지관과 함께 해주세요

### “자원봉사” 함께 해주세요.



- 아동·청소년 지원활동(프로그램보조, 멘토링 등)
- 어르신 지원활동(경로식당, 도시락배달, 이·미용서비스 등)
- 기타활동(복지관 행사지원, 행정업무 보조, 단순도움활동 등)
-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외부활동 이용자 케어, 재능기부 등)
- 아동청소년센터(학습멘토링, 재능기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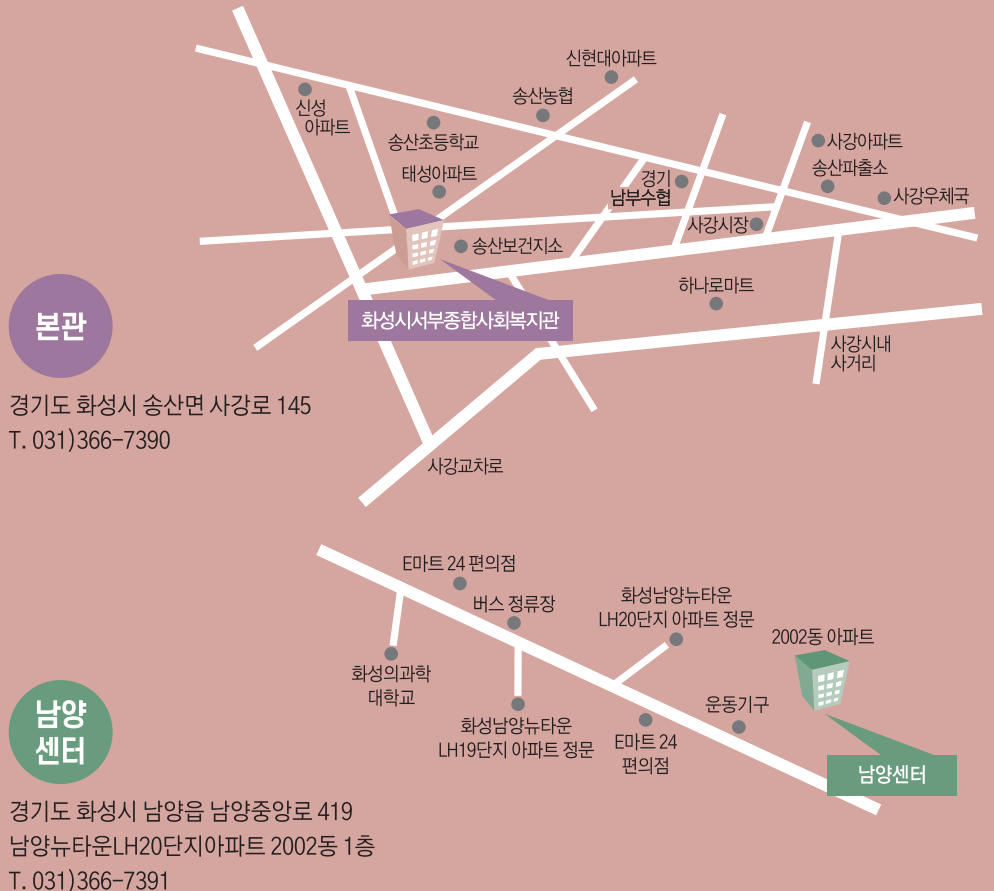
### “후원” 함께 해주세요.

- 일반후원** 복지관의 후원계좌에 후원금을 이체하여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CMS후원** 후원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 전자결제로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 1:1결연후원**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게 1:1 결연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해 줍니다.
- 특별후원** 지역사회를 위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물품, 차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물품후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 가전제품, 주·부식 등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나눔합니다.

복지관 후원계좌 (예금주 : 화성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농협 355-0046-1119-43 / 기업 927-017510-01-018**

아동청소년센터 후원계좌  
**농협 355-0076-6192-63** (예금주 : 화성시시립서부아동청소년센터)

## 지역주민의 일상 속에 늘 서부복지관이 있겠습니다



### 본관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사강로 145  
 T. 031)366-7390

### 남양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419  
 남양뉴타운LH20단지아파트 2002동 1층  
 T. 031)366-7391